

화엄 · 무량 · 무소속

종책모임 통합... 조계종 선거 '신호탄'인가

오는 10월 10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신호탄'이 울랐는가. 前 화엄회, 무량회와 무소속 중앙총회의원이 통합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25일 중앙총회 제194차 임시회 개회에서 "소임에 대한 마음을 비웠다"고 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은 前 화엄회, 무량회와 무소속의 통합이다. 이들 중앙총회의원 46명은 6월 25일 종로 AW컨벤션센터에서 '(가칭)불교광장'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열고 포럼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연대를 한다고 해도 종회 의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칭)불교광장'을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구성 주체인 화엄회와 무량회의 경우 교구 분사 연합 성격도 강해 이에 대한 대항마가 형성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가칭)불교광장'의 창립은 그간 폐해가 많았던 선거 대신 후보 추대로 안정적인 종권 이양이 이뤄질 수 있는 종책의 연속성을 가지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기존 종권의 연장이라는 지적과 세력이 지중된 나머지 종책 선거가 상실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발기인들은 7월 11일 창립총회와 기념세미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총회에서 고문과 회장,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사무처, 대변인을 구성하기로 했다. 분사 주지 스님들은 지도위원단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에 대한 동의 절차는 법보, 성직, 지홍 스님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이 맡기로 했다.

25일 '불교광장' 발기인 모임
7월 11일 공식 창립 결의
해체 1년 만에 다시 모여
선거보다 추대로 종단 안정
"종책아닌 세력 우선" 비판도
자승 스님 "소임 마음비워"

이날 회의에서는 창립취지문도 발표했다. 발기인 모임은 창립취지문에서 "(가칭)불교광장은 '종단의 안정과 종도들의 화합'을 기치로 대통합의 선두에서 서서 한국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종도들의 슬기로운 지혜와 불조의 해명을 이어 이 시대의 등불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칭)불교광장' 모임이 7월 창립되면 중앙총회 80명 중 과반을 훌쩍 넘는 최대 종책 모임이 탄생하는 것이어서 10월 총무원장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가칭)불교광장'의 임시 사무처장을 맡은 덕문 스님은 "금권 등 선거의 폐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보다는 추대로 총무원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종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도 통합의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해체한 뒤 꼭 1년만에 통합한 종책모임. 이들의 행보가 대통합의 선두일지 집권 연장의 시나리오일지 종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前보림회 등 여타 종책 모임이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출제가 결사모임 '붓다로 살자'는 6월 22일 출범 범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갔다. 동참대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지금 여기, 붓다로 살겠습니다"

출제가 결사 모임 '붓다로 살자' 22일 공식 출범

'만물이 부처'라는 불교의 중요한 명제를 되돌아보고 실천하려는 사부대중 결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출제의 결사 모임인 '붓다로 살자'는 6월 22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출범 범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천 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매년 모임마다 생명평화 100배와 대중공사를 통해 붓다로 살겠다는 각각의 발원과 서원을 되새겼고 출범 범회에서도 그대로 진행됐다. 이날 '붓다로 살자'의 첫 걸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사만

없이 다니기 △매주 동네 한바퀴를 돌며 공동체 살피기 등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향후 '붓다로 살자'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를 공존과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한 걷기 정전, 100일 순례, 평화의 종 건립 불사 등을 전개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참석대중들은 '남과 북 함께 살자', '남과 북 대화합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한반도 평화 기원 행진을 진행한 후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출범 범회에는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퇴후 스님 등 출가와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신행 포교단체장과 전북, 부산 거제의 지역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척가모니 부처님은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붓다로 사는 길은 가르치셨다. 2600년의 불교 역사에서 높은 스승들은 이 같은 삶은 사신 분"이라며 "21세기 한국·문명사회의 희망은 불교에 있다. 모두 삶의 현장에 굳건히 서서 모든 행복을 위해 지금 여기서 붓다로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사부대중 300여 명 참가
'붓다치며 살아가기' 서원
평화 기원 행진으로 마무리
100일 순례·범종 불사 계획

올해 1월 11일 남원 실상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 '붓다로 살자'는 6차례의 월례모임과 전북, 부산 등에서 모임을 가지면 출범을 준비해왔

화가 박재동 화백과 김선우 시인도 동참해 자리를 축하했다. 또한 이날 동참자들은 서원문을 통해 매일 '붓다로 살자' 서원문을 읽을 것을 비롯해 △매일 1백원 이상 보시 △남의 말 경청하기 △소박한 밥상 차리기 △매주 하루 자가

947호 INDEX

시방세계 어린이 여름 템플스테이 5



6월 호국 사찰을 가다 제 5군단 호국 금강사 12



화엄만다라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16·17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6월 25일 중앙총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스님은 "소임에 대해 마음을 비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前 화엄 · 무량 · 무소속 총회의원들은 같은 날 통합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사진=박재완 기자

팔공 · 쌍계 · 금정총림 방장 추대

지난해 새롭게 지정된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에 진제 스님(조계종 종정), 쌍계총림 쌍계사 방장에 고산 스님이,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에 지유 스님이 각각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6월 26일 속개한 194회 임시회에서 각 총림에서 추천된 방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새롭게 지정된 총림의 방장이 공식 추대됨에 따라 조계종은 8대 총림의 시대를 열게 됐다. 하지만, 백양사 방장은 공석이다. 총림은 선교율을 닦는 종합수행 도량으로 조계종은 1946년 가야총

림이 시작돼 1967년 해인총림으로 거듭난 뒤 이 같은 총림을 중심으로 종단의 수행가풍을 이어왔다. 신규 총림이 지정된 것은 1996년 고불총림 지정 이후 16년 만이다. 이와 함께 총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추대된 방장 스님은 임기와 의무 조항에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된 총림법에 따르면 방장 임기는 10년으로 증임할 수 없으며, 각종 법문과 화두간택, 점검 등 납자들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됐다. 신종일 기자 새 방장 스님 이력 2면

비구니 의원, 종회 불참 사태

194차 조계종 중앙총회서... 초심호계위원 진입 불발

비구 의원들 울장 위배 주장
"비구니가 더 불이익 줘" 폄하
불교여성단체들도 항의 성명

비구니 승가를 차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퇴장하게 됐고, 이는 사전 계획된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6월 25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 조계종 중앙총회 제194차 임시회 비구니 총회의원 스님들의 퇴장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비구니 활동과 능력을 폄하하면서 경쟁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을 통해 이부승가로서의 비구니 의원 역할을 존중해줄 것을 종회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발단은 첫 안건인 종헌 개정안 축조 심의에서 '비구니 호계위원' 진입을 놓고 비구, 비구니 의원 스님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부터. 현행 종헌 제12항 호계위원 조항에서는 호계위원은 승남 25년, 연령 45세, 법계 3급 이상의 울장과 청구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한 개정으로 종헌중범제계정특별위원회는 '비구'를 '승려'로 열어줬다. 또한 초심과 재심호계위원의 자격을 나눠 명시했다.

불교여성개발원 등 불교계 재가 여성단체들도 이번 비구니 의원 스님 전원 불참 사태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비구 스님들은 "울장으로 비구가 비구니에서 갈마를 받을 수 없다"며 "비구니 스님들이 호계위원으로는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스님을 심리했을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폄하 발언도 나왔다.

재가여성단체들은 중앙총회의 사과와 제정도를 촉구하면서 "만약 중앙총회가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고집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여성불자들은 차별적 종헌중범을 포함한 교단평등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비구니 스님들은 한, 두명씩 회의장을 나왔고, 이번 총회에는 10명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스님들은 6월 2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임법기관인 중앙총회 본회의장에서



여름, 마음에 심포 하나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gyo.com.kr @bulgyo_c
www.facebook.com/bulgyo

법정 스님의 수필과 함께 30년 넘게 불교계 최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켜온



선방일기

지혜 스님이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서 동언거를 보내며 쓴 일기로, 법정 스님 수필과 함께 불교계 대표적인 스타디오편이다. 이해인 수녀가 "매우 솔직 담백하면서도 구도자의 깊은 사색과 예리한 성찰이 돋보이는 수행 일기를 읽고 나니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내면을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라고 밝힌 책.

지혜 글 | 전통한 그림 | 116쪽 | 9,800원

팔만사천 경전에서 뽑아낸 가장 아름다운 말 185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구절

종교와 시대를 초월해 누구나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경전 구절 185편이 실려 있다. 특히 마음, 말, 자비, 나눔, 배움, 인연 등 삶과 친숙한 주제에 맞춰 가려 뽑았다. 짧은 글줄로 되어 있어 틈틈이 한 구절씩 읽고 깊은 뜻을 음미할 수 있다.

이진영 엮음 | 정복, 무비, 원철 감수 | 296쪽 | 12,000원

도쿄대 출신의 신세대 스님이 들려주는 쓸데없는 고민 탈출 비법!



번뇌리셋

도쿄대 출신으로 유명한 저자가 마음속 번뇌를 청소하는 법을 92편의 이야기기린 네 컷 만화와 짧은 글로 일러준다.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읽다 보면 영커 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하나둘씩 풀려간다.

코이케 류노스케 글, 그림 | 이해연 옮김 | 304쪽 | 13,800원